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I. 국내외 고등교육 전망

1. 지방대학의 현주소

현재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구조적 악순환의 반복, 수도권-지방 대학 간의 교육 격차 심화, 구조개혁과 특성화 노력 부족으로 인한 미충원과 폐교 속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지역 마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추락은 향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64%를 담당하는 주요한 인력양성의 주체로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동력이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가치와 역할을 재인식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지방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발전 방향과 그에 맞는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정영길, 2013).¹⁾

2.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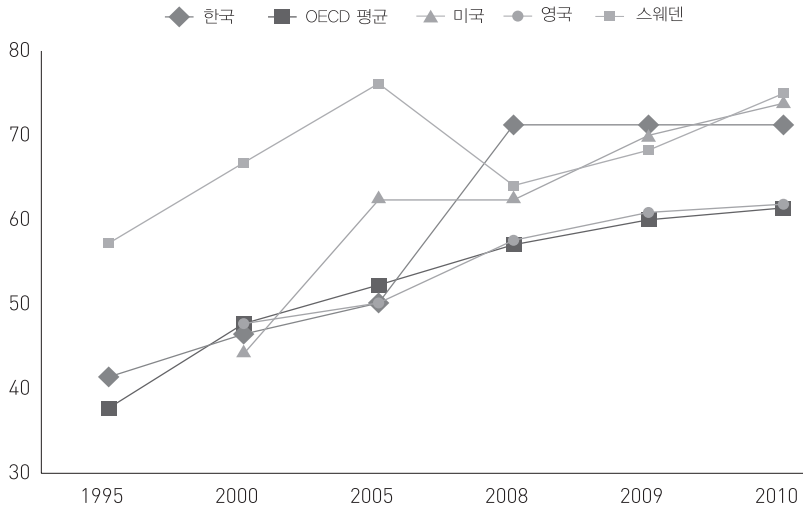
최근 OECD 가입 국가들의 대학 입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의 고등교육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경쟁력의 화두는 ‘소수의 강한 대학 육성’에서 ‘다수의 강한 대학 육성’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특성화가 더욱

1) 정영길(2013).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대학 입학률 추이(1995~2010년)

(단위: %)



출처: OECD(2011).

특성화에 관한 해외 주요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국제화에 의한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이 시작되었다. 크게 엘리트 교육을 탈피한 대중화 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등교육을 개혁하려는 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영국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였으며, 특히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발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다(조영하, 2007).²⁾

일본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학들이 격렬한 변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각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 계획과 전략을 세워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대학은 도태, 재편, 통합 등이 필요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대학개혁을 초월하여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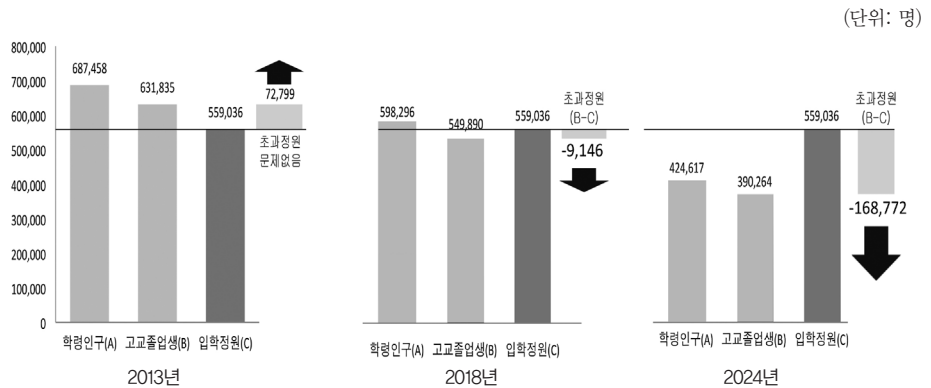
2) 조영하(2007),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 대학교육(2007년 11월).

학 특성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게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대학개혁은 대학 개혁론에서 대학 특성화론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대학 특성화를 요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대학 특성화는 대학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잉투자보다는 개성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차별화를 전제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자체의 자성과 발전 전략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구견서, 2009).³⁾

3.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2024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의 약 30% 정도가 미충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구조개혁 없이 현 상황대로 유지된다면 급감하는 입학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크게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 학년도에도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학생일 정도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악화되었다.

그림 2. 학령인구 감소 예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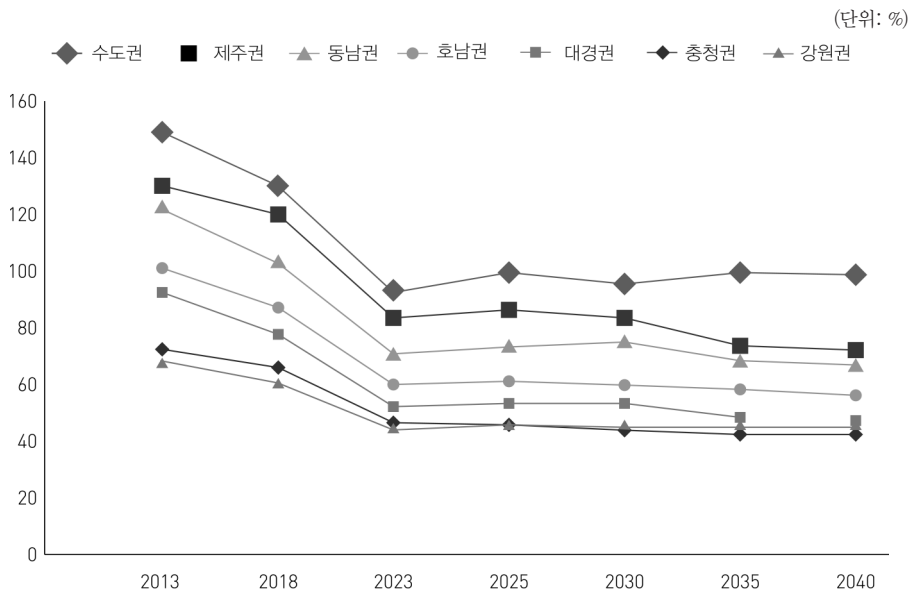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3) 구견서(2009). 일본에 있어서 대학특성화의 특징과 방향, 일본학보 제78호(2009년 2월).

특히,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과 같이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설립 준칙 제도가 마련된 1997년 이후 무려 23개의 대학(4년제 대학 11개)이 개교하여 수요와 공급이 무너질 것은 예견된 결과였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대학들의 노력이 대학 특성화로 나타나고 있다(오영재, 2003).⁴⁾

그림 3. 2013년 이후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율 전망



출처: 배상훈 외(2012),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양적 투자가 질적 투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양적 지표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1970년 대비 학생 수는 13배, 전임교원 수는 8.5배 증가했으며,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 각종 기관 단위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

4) 오영재(2003), 지방대학의 특성화 추진현황과 미래과제, 대학교육(2003년 5~6월).

해 재학생 충원을 및 취업률 등의 양적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 개편 및 대학 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 등 질적인 개선의 노력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는 재정 투입 측면에서 교육 여건과 산출 결과에 초점을 두어, 대학 전반의 교육 내용과 과정에 대한 질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 기본 방향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방대학 살리기를 고등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작년 11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어서 12월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핵심 제도를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 이어 2014년 2월에 구체적인 지방대학 지원 방안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공고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들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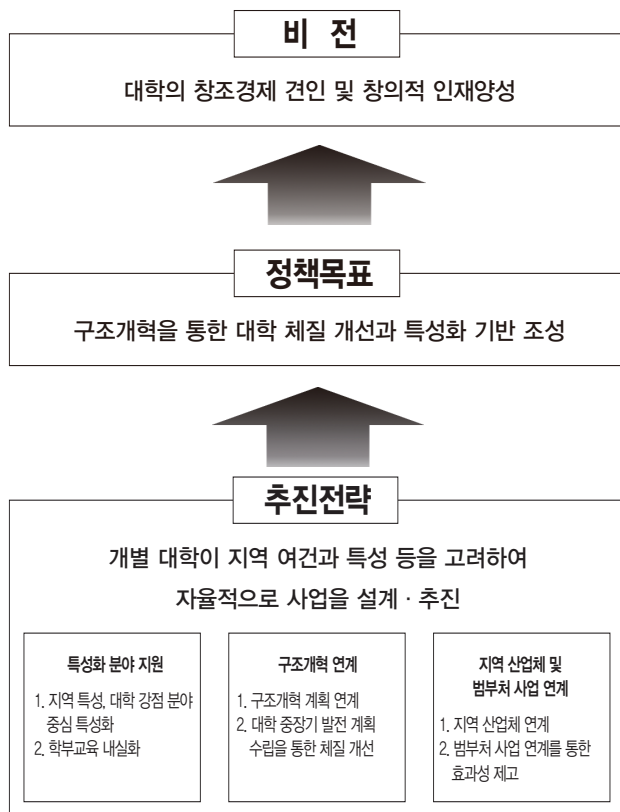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 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사업 명칭을 ‘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라고 명명하였다. CK 사업에는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대학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네 가지의 큰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정원 감축,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특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둘째, 양적 성과보다는 특성화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선, 학습 지원 체제의

구축과 실험실습 지원 확대 등 학부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다. 단순한 재정 투입에 대한 결과보다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실제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의 변화를 의 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변화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안착되어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 융성의 기반이 되는 인문사회 등과 같은 기초학문의 육성과 학문간 융합을 통한 통섭형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의 특성화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지역의 연고·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지방 학생이 인근에서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대학 특성화는 소위 ‘잘 나가는 학과(학부)’를 그 대학의 대표적 학과(학부)로 특화하거나 대학 평가에 대비하는 수동적 반응 등 수동적이고 단기적인 전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 대학 경영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접근하고 있다(오영재, 2003).⁵⁾

특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은 우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지방대학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사업 유형 및 자원 배분

특성화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 ② 국가지원 유형, ③ 지역전략 유형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학자율 특성화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이며, 둘째, 국가지원 특성화 유형은 다양한 학문 분야 지원을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 특성화 유형’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사업 유형)와 그 결과를 보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특성화 및 각종 지표에서 유리한 특정 학문 또는 유형으로 집중 지원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유도하는 ‘대학자율 유형’ 외에, 기초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유형’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유형’을 신설하여, 학문 증진, 인재 육성, 지역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 등 지방대학의 다양한 역할들이 균형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특성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과 예체능 계열의 소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원 유형’에 25%의 재원(46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동 유형에서 지방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였다.

사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자율 유형은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단 규모도 대·중·소형으로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며, 대학 규모에 따라 사업단 수와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가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 규모별로 2~4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 유형은 대학별로 1개의 사업단만 신청 가능하고 타 대학 간 네트워크(주관대학-협력대학)로도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 연계 참여도 허용된다. 이 때 타 대학과 네트워크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단가(20억 원)의 30%를 가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중·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하고 대학 규모별로 지원 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고, 사업단도 예산 규모에 따라 대·중·소형 사업단으로 구분하여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단을 신청할 수 있다.

5) 오영재(2003). 지방대학의 특성화 추진현황과 미래과제, 대학교육(2003년 5~6월).

표 1. 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

(단위: 개, 억 원)

구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주요 내용	성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계열 및 국제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3개 유형		
	대학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별 1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사업단수	5	4	3	4	3	2		10	8	6
	신청가능액	50	40	30	12~19	9~16	6~13	20~26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95	69~82	56~69

예산의 배분 내용을 보면, 특성화 사업비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권을 제외한 전국을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대경권(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광주, 전남·북, 제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학생 수와 학교 수의 비중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

이는,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둔 연유에서 비롯된다. 과거 재정 지원 사업의 경우 단순한 대학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는 지방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지방대학은 학문을 증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동력이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이다.

표 2. 권역별·유형별 자원 배분(안)

(단위: 명, 개교, 억 원)

구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재학생 수	학교 수	재원 배분			
충청권 (대전, 충청)	296,397	40	355	137	75	567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250,144	32	298	119	75	492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186,994	30	229	96	75	400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28,264	24	268	108	75	451
합계	961,799	126	1,150 (60%)	460 (25%)	300 (15%)	1,910 (100%)

주: 2013년 4월 1일 기준.

지식 기반 창조경제시대에서 지방대학은 대학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R&D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과 적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및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핵심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학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명문 지방대학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함과 동시에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영길, 2013).⁶⁾

3. 특성화 단위(사업단) 구성

특성화 단위(사업단)는 단일(또는 복수) 전공, 학과, 학부, 또는 프로그램 및 기능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특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참여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1개 사업단 참여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3 미만이어야 하고,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2 미만이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 이후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가 우려되며, 이는 지방대학의 재정구조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기본적인 교육마저 어렵도록 만드는 등 지방대학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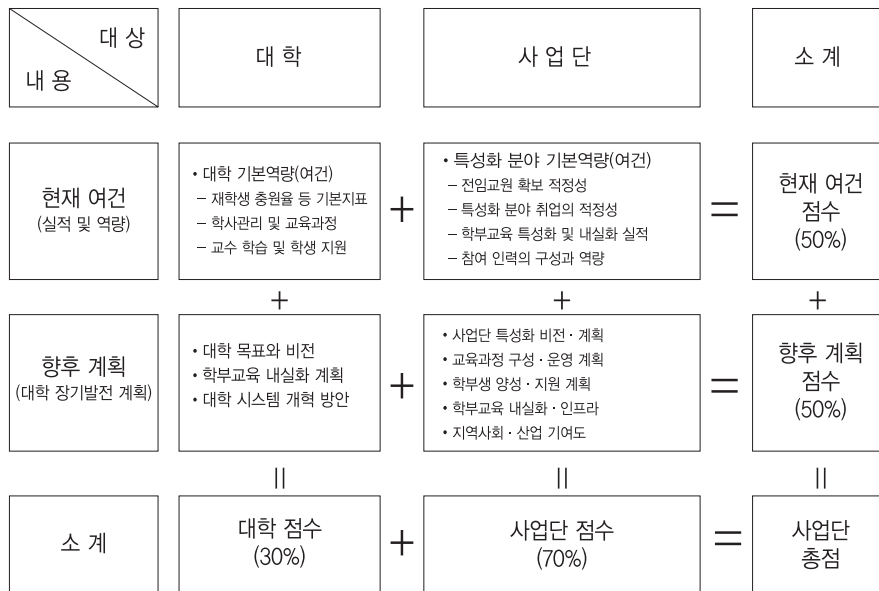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집중 지원으로 특성화 분야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체 재학생 중 참여 학생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또한, 단기간인 5년 뒤에 수도권 대학을 능가하는 우수 학과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학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교육을 인근 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 전공 또는 학과로 지원한 사업단 중 권역별 10개 내외의 우수 사업단을 선정하여 ‘명품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고, 추가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4. 평가 구조

사업단 선정 평가 지표는 평가 대상과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평가 대상은 대학 평가와 특성화 사업단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평가 내용은 현재 특성화 여건과 향후 계획 평가로 구분하였다.

그림 4. 선정평가 기본구조(안)



6) 정영길(2013).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방안 연구.

사업단 선정 평가는 총 100점으로 구성되며 소속 대학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30점, 특성화 사업단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그간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에서 정량평가로 평가함으로써 평가하지 못했던 교육과정과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보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평가 지표는, 여건 관련 양적 지표 비중을 낮추고 학부교육 내실화 등 정성적 지표 비중을 50%까지 높여 향후 대학들이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학생지원 등 정성적인 지표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지표의 세부 내용은 대학자율 유형의 경우, 대학 기본 여건 영역으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등 7개 지표에 15점이 배점되었다. 대학의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 영역으로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등 3개 지표에 15점을 배점하였다. 대학의 여건과 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에서 특성화 학문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대학의 비전에 부합하게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특성화 사업단의 특성화 역량 평가 지표로 특성화 여건 영역에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강의 비율, 특성화 분야 재학생 충원율,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8개 지표로 35점을 배점하였다. 특성화 계획 영역에는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5개 지표에 35점을 배점하였으며, 이는 특성화 여건과 계획 지표를 통하여 특성화 사업단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Ⅲ. 특성화 사업 후 지방대학의 변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색깔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입시의 선택 기준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문 분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특성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방대학의 향후 모습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4월 30일 마감한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지역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디스플레이, 농생명·해양, SW/IT·건강, 영상·콘텐츠와 연계된 특성화 사업단을 신청하여 대학이 지역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단이 신청되었다.

과거 재정 지원 사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참여 확대도 두드러졌다. 전체 989개 신청 사업단 중 문화 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사회계열이 43%, 예체능계열이 1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자연계열이 19%, 공학 계열이 28%의 비중으로 집계되어 학문간 고른 특성화가 기대된다. 이는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예체능을 위한 ‘국가지원 유형’을 별도로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사업단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신청 사업단의 67%가 학문간 연계를 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 융복합 사업단으로 구성하였다. 학문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학문의 틀을 깨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연고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창출됨으로써 문화 융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작지만, 강하고 알

찬 대학'이 전국 방방곡곡에 운영되어 지역사회·경제와 함께 성장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견인을 기대해 본다. 